

# 전주시청 로비 · 노송광장 탈바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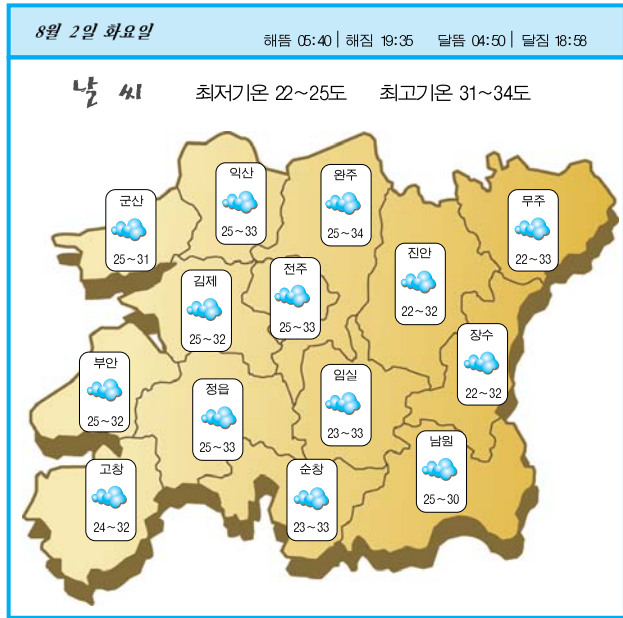
### 전주책방 · 꿈앤카페 조성 시청 방문 시민들 위한 열린 공간으로

전주시청 로비와 시청 앞 노송광장이 시민들을 위한 열린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그간 민원 해결 등을 위해 시청을 방문하는 시민들이 지나던 전주시청 로비가 시민들이 무더위를 피하며 책을 읽고 차를 마실 수 있는 열린 공간으로 탈바꿈했다. 1일 전주시에 따르면 지난달 11일 시청로비 2층에 문을 연 전주책방은 개소 첫 주 하루 평균 30~50명이 찾았지만 3주 만에 하루 평균 80명 이상이 이용하는 등 이용객 수가 꾸준히 늘고 있다. 전주책방은 시민들이 전주관련 도서와 전주에서 활동하는 작가의 서적, 전자출판물 등 다양한 책을 만날 수 있는 독서공간으로 독서를 위해 찾는 시민

들은 물론 각종 소규모 강의와 스키드모임 장소로도 활용되고 있다. 또한 시는 보건복지부와 한국장애인개발원의 '공공기관 연계 중증장애인 창업형 일자리 지원사업' 선정에 따라 시청 로비 1층에 시민들이 차를 마실 수 있는 '꿈앤카페'도 조성했다. 꿈앤카페는 중증장애인 창업형 일자리 지원사업의 하나로 전북장애인학부모회 전주지회와 위탁을 받아 3명의 중증장애인이 바리스타를 고용해 시청을 방문한 시민들에게 시원한 커피와 차를 판매하고 있다. 이와 함께 시청 앞 노송광장도 각종 행사와 축제를 위한 공간으로 재공해 시민들의 품으로 돌려주고 있다. 노송광장은 시민 개방 이후 각종 전

사회 및 공연, 영화 촬영장, 농산물 등 지역특산물 판매, 캠페인 태조어진 봉안행렬 등 다양한 행사와 문화공연이 펼쳐지고 있다. 또 어린이집과 유치원 어린이들의 야외학습장은 물론 인근 주민들과 직장인들의 휴식공간으로 활용되면서 남녀노소를 불문한 시민들의 여가공간으로 널리 사랑받고 있다. 여름철 무더위로 인해 어린이 단체 나들이와 직장인들의 방문이 뜸해진 지난 30일과 31일에는 전주시민들과 전주를 찾는 관광객들이 무더운 여름과 전장을 선포하는 2016 전주 물총축제 '워터워즈'가 노송광장에서 펼쳐지기도 했다. 앞서 지난해에는 한 커플이 노송광장에서 야외결혼식을 올려 시청주변

을 지나가는 많은 시민들로부터 축하를 받기도 했다. 이와 관련 시는 민선 6기 출범 이후 서울시와 광주시, 성남시 등에서 시민들에게 호응을 얻고 있는 '시민청' 도입을 위해 전주형 시민청 조성을 위한 '노송광장 다들미팅'을 구성·운영하고 있다. 꿈앤카페와 전주책방 조성도 다들미팅 위원들의 제안에 따라 시민들이 자주 지나는 1층 로비 공간의 북카페를 시민을 위한 작은 카페와 책방으로 조성하게 된 것이다. 전주시 관계자는 "시청은 주 이용대상이 시민이므로 시민들에게 열린 공간으로 돌려드리는 것이 맞다고 본다"라며 "시청 로비와 노송광장에 이어 시청의 모든 장소가 시민들과의 소통의 장소로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영재기자



## 이남호 전북대 총장 여름 특별학기 학생들 찾아

### "오늘 흘린 땀이 밝은 미래 열어나가는 밑알 될것" 격려

이남호 전북대 총장은 1일 폭염이 땀을 흘리는 가운데도 학생 기초 역량 강화를 위해 진행되고 있는 여름 특별학기 수업을 받는 학생들을 찾아 이 같이 격려했다. 이 총장은 무더위가 한창인 오후 4시 30분 더위를 잠시 잊게 해줄 아이스크림을 한 아름 안고 자연대 강의를 깜짝 방문했다. 이 총장은 매 학기 서너 차례 학생들을 직접 만나 간식을 전달하며 격려와 소통의 시간을 해오고 있다. 이 총장의 이 같은 깜짝 등장에 학생들은 어리둥절 웅성였지만 이내 박수와 환호로 맞았고, 이 총장은 학생 한 명 한 명에게 시원한 아이스크림을 전하며 어깨를 다독였다. 학생들도 감사 인사와 웃음으로 화답하는 등 훈훈한 모습이 연출돼 많은 이들을 미소 짓게 했다. /고민형기자

이 총장은 '현일 폭염이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도 우리 학생들이 기초 역량을 키우겠다는 의지로 강의실에서 구슬땀을 흘리고 있는 모습이 대견하다'며 "우리 학생들에게 큰 박수를 보내며, 오늘 흘린 땀이 밝은 미래를 열어나가는 데 밑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북대는 지난 2011년 학부교육선진화 선도사업 선정으로 '기초교육 강화형 학부교육 선도모델'을 만들어 나가며 전국적으로 잘 가르치는 대학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를 통해 신입생 4학기제를 시행 여름과 겨울 특별학기에 학생들에게 부족한 수학과 영어, 화학, 물리 등 기초과목을 운영하며 학생들이 기초를 탄탄히 해 내실 있는 전공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고민형기자

## 전주시, 휴가철 관광객 맞이 주요거리 여름 꽃 단장

### 천일홍 맨드라미 · 메리골드 등 21종 16만본 한옥마을 충경로 · 효자로 등 식재하기로

전주시가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시민들과 전주를 찾는 관광객들이 시원함을 느낄 수 있도록 주요거리를 여름 꽃으로 단장한다. 시는 오는 19일까지 전주시립양묘장에서 직접 생산한 천일홍과 맨드라미, 메리골드 등 여름 꽃 21종 16만본을 한옥마을과 충경로, 효자로 등에 배치된 화분과 화단에 식재할 계획이다. 이번 여름꽃 식재는 장마에 훼손된 꽃들을 정리하고 초록잎과 흰색·보라색 계열의 꽃을 심어 보는 이들이 시원한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맨드라미의 노랑 빨강의 원색을 더해 도심 거리를 산뜻하게 단장키로 했다. 특히 경기전 앞 화단의 경우 관광객들이 옛 거리에 대한 향수를 느낄 수 있고 전통문화도시 이미지를 높일 수 있도록 우리 꽃을 조화롭게 식재해 한옥마을의 품위를 더해주는 풍경을 연출할 계획이다. 시는 도심 곳곳에서 펼쳐지는 울긋불긋 꽃의 향연을 통해 관광객과 시민들이 잠시 더위를 잊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주시 생태도시국 관계자는 "거리



"더위도 일은 해야죠" 폭염특보가 전국으로 확대된 1일 오후 어느 공사장에서 관계자가 불꽃을 일으키며 철재구조물 설치 작업을 하고 있다. 면서 "한옥마을과 전주역광장 등 관광객의 발걸음이 많이 닿는 곳에는 다양한 꽃으로 풍성하고 화사하게 단장해 꽃 도시 이미지를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영재기자

## 신협, 하반기 신입사원 전국 공동채용

신협이 올해 하반기 신입사원을 공동채용한다. 하반기 채용규모는 전북을 포함한 19개 조합, 40명 내이며, 채용 직렬은 일반관리직이다. 채용절차는 서류, 필기(일반상식 및 선택과목(만법, 회계, 경제, 경영 중 택1)), 면접시험 및 신체검사 순으로 진행된다. 해당지역 거주자 및 지역 내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졸업자(졸업예정자 포함)를 우선적으로 채용될 예정

이며 연령·학력·전공·학점·어학점수 제한은 없다. 오는 5일까지 취업포털 '사람인' 홈페이지를 통해 원서접수를 받으며 1차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일은 이달 17일이다. 필기시험은 27일 진행할 예정이다. 신협중앙회 관계자는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 연 2회 공동채용을 실시해 우수한 인재들이 신협과 함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구독 · 광고문의 288-9700

청결·세상

# 같은 마음의 에너지 절약이 모두의 미래가 됩니다

국민과 기업이 함께하는 더 나은 내일! 온실가스를 줄이는 모두의 에너지절약이 지구를 살립니다

기업과 개인 모두 여름철 실내온도 26℃로 절약은 더하기

실내조명 자동제어 시스템으로 낭비는 줄이기

도서지역을 신재생 에너지로 희망은 두배로

친환경 전기자동차 보급으로 기쁨은 나누기

전라북도 한국에너지공단 전북지역본부